

# “이 비극의 교훈 결코 잊지말자”

## 조계종 사태 43일

조계종 총무원이 23일 정화회의에 의해 점거됐던 총무원청사를 되돌려받음으로써 조계종사태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불자들은 한결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뜻을 모으고 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불교는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다시 불자들과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울골은 불교의 모습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졌다. 조계종사태가 남긴 교훈과 후유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 ■ 교훈

#### 출가정신·수행풍토 되찾아야

부처님께서는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주나, 뱀이 먹은 물은 독이 된다”고 경책했다. 뒤늦게서야, 너무나 많은 것을 잃으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전법하는 불제자들이라면 초발심의 출가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있다.

한 재가불자는 조계종사태가 터진 직후인 11월 중순 “개혁종단 4년의 가장 큰 실패는 건전한 개혁세력의 조직과 지원을 소홀히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종헌종법 수호”라는 명분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명분을 뒷받침할 힘이 없었음을 두고 한 말이었다. 건전한 개혁세력의 형성이 시급하고 중대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또다른 스님은 “조계종의 오랜 불교 역사 중 명분보다 물리적 우위 또는 정치적 절충으로 결론지어졌다”는 분석은 이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광범위한 개혁세력이 없었으니 끝내는 경찰력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종단도 유기적 질서로 유지되는 생명체임을 알 수 있게 해준 것도 교훈이다. 종헌종법 질서가 일부세력의 의지나 폭력만으로 깨질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혁과 변화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것이다. 물론 상반된 의견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나가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합을 위한 기본적인 의지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이와 함께 불교 고유의 전통과 관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었지만, 경선을 도입한 선거 제도에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때문에 산중공의, 장로에 의한 의사 결정 방법 등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돈과 권력이 부패하거나 잘못 쓰이면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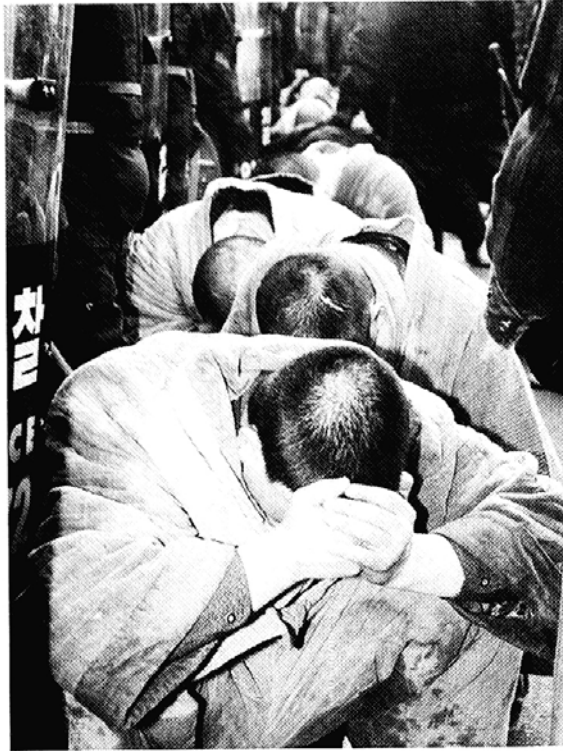
### ■ 후유증

#### 포교·불사 차질...상호불신 우려

“불교인이라 것이 흥이 돼버렸다.” 많은 불자들의 한탄이 아니어도 불교와 불교인은 부끄럽다. 성철스님의 열반으로 한국불교 포교 10년을 이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몇 십년을 후퇴시켰다. 폭력으로 얼룩진 불교의 얼굴을 씻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불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훼손된 불교이미지 재고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일이다.

포교 및 각종 사회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말뚝불심의 이탈은 크지 않더라도 잠재 불자의 동요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기피현상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로 승가 내부는 너무 깊은 골을 만들었다. 한국불교의 구



◇두번다시 보고싶지 않은 장면이 23일 또 연출됐다. 이 부끄러움은 내일의 희망이어야 한다. 경찰의 진입에 격렬히 저항하던 정화회의측 스님들이 연행되고 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총무원 청사 1층.

심잡인 원로들까지 이번 사태에서 자우름지 못했다. 재가 사이의 편 가르기도 상처로 남아 있다. 불교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완전히 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불교내부에서 자행되는 훼손사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한 신도의 말에는 불교계가 자성하고 새로운 발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긴박함이 서려 있다. 이교도들의 책분에 보다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불교계 스스로가 호법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경제에서 자행되는 훼손사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한 신도의 말에는 불교계가 자성하고 새로운 발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긴박함이 서려 있다. 이교도들의 책분에 보다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불교계 스스로가 호법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 종단 정상화 위한 각계 목소리

#### 총무원 권한 교구본사에 대폭 이관

법정스님(무진법장사 주지)=책임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세를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만약 참회를 못하겠다는 화합승가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종단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총무원 권한과 조직을 축소한 뒤 역할을 최대한 교구본사에 이관하고 위치도 서울외곽이나 산중사찰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가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행불교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종정스님도 더욱 상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교계의 대사회적 참여를 강화하여 이번 일을 반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돈과 권력 좇는 스님 승단서 축출

윤창광(작가,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이번 사태를 무승부로 끝내야 한다. 모두 일분제자요, 도반이지 않은가. 그러기에 승패가 있을 수 없다. 원수일지라도 용서하라고 했다. 돈과 권력이 욕심나는 스님들은 승단을 떠나야 한다. 출가해 먹물웃을 입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혹, 수행자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속퇴를 결정하기 바란다. 부규의 근원을 일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찰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상의 세 가지가 이제부터 우리 불교계에 맡겨진 과제이다.

#### 사부대중 모두 주인의식 가지자

박광서(우리는선우 대표, 서강대 교수)=아직 반쪽해결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이번 종단사태가 승단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가 바로 불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자의 종단참여문제는 새 총무원체제 출범이후 불교바로세우기를 위한 신념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 운영체제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가자들은 권리찾기가 아니라 진정한 불제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되새기고 주체적인 자세로 종단 정상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종단 사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범불교재가연대는 앞으로 상설기구로 정착해 상시로 종단 발전과 안정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종단 외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 소수 스님에게만 권한 집중이 잘못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종교단체의 경우 현대화와 민주화는 재정 및 신도관리,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들이 지나치게 극소수의 스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기독교와 소의계층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사회는 계층간 분리가 끊이지 않는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스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수행과 신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또 신도는 재정과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 참회·자비행으로 본래모습 보여야

김동훈(경북련 운영위원장)=DMF관리체제에 따른 영향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업의 문제는 여전하다. 따라서 불교의 대사회적 자비실천행은 조계종사태와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불교의 떨어진 위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참회운동을 벌여야 한다. 부처님과 스스로와, 국민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참회해야 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 모든 사찰과 단체, 불자들은 참회기도를 올리고, 새로운 불교와 불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을 해야 한다.

사태 발단에서 수습까지	
11월 11일	승원주총무원장 3선인대 전국 승려대회 개최. 정화개혁회의 출범. 총무원 청사 점수.
11월 12일	월하종정 “제2의 정화 독립” 담화문 발표. 중앙선관위 선거 연기 공고.
11월 13일	중앙종회 결성사서 제135회 정기총회.
11월 14일	구룡시 원로회의서 원로의장 불신임, 종회 해산결의. 원로의장 해임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구룡시 원로회의 무효” 주장 대각사서 기자회견.
11월 16일	총무원, 조계사 건너편 천마빌딩서 업무 시작.
11월 18일	중앙선관위 총무원장선거 재선거.
11월 19일	월주스님측 청사 탈환시도. 월주스님 후보사퇴.
11월 20일	종회 봉은사서 속개. 전국승려대회 결의. 종단헌 조계종 사태 조속한 종식 촉구.
11월 21일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회 명단 발표(2백92명).
11월 23일	총무원 광화문일대서 폭력범죄 공권력에 대한 항의시위.
11월 24일	중앙종회 종단사태 수습안 방침 발표.
11월 25일	재가단체 비상대표자회의 1080인 서명 운동 중간발표.
11월 26일	교구본사지연협회, 총무원, 중앙종회, 정화개혁회의 4자 간담회. 지성인 서명 기자회견.
11월 27일	4자 간담회서 본사주지연협회 회의안 제안.
11월 28일	4자 간담회서 종회측과 정화회의측 합의안 작성. 개별 반박.
11월 29일	4자 대표 월하종정 방문. 13개 회의안 결의.
11월 30일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개최. 청사 진입 둘러싸고 공방.
12월 1일	새벽까지 공방 계속. 조계사 대웅전 화재 발생. 정기중앙종회 속개. 총무원, 종회측 중앙종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12월 3일	월하종정 담화문 발표. 종단사퇴 국민에 시기와 정화불사 정상화 주장.
12월 4일	본사주지연협회 종단화합 4개안 입장 발표.
12월 6일	총무원, 공권력규탄 범불교도대회 개최. 정화회의, 대웅전 범규단발회 개최.
12월 7일	제136회 중앙종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 방법 개정. 정화개혁회의 ‘종단사태 수습과 회합을 위한 대안책’ 발표.
12월 8일	문화부 주무실 4차 모임 주선.
12월 10일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단체 대표자회의 발족.
12월 11일	서울지법, 총무원청사 퇴거단행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선고. 총무원측 승소.
12월 14일	제137회 임시중앙종회. 정무원승소 정화회의측 종회의원 6명 제명결의. 중앙선관위 29일 총무원장 선거 실시 결의.
12월 15일	총무원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 19개본사 참여. 금강호법단 창단.
12월 16일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 출범.
12월 18일	법원 퇴거단행 1차 집행 무산.
12월 19일	법원 퇴거단행 2차 집행 무산.
12월 21일	총무원 조속한 공권력 집행 요구 기자회견. 정화회의 72인 비상종단 구성 제안 기자회견.
12월 23일	법원, 경찰 정화회의의 청사퇴거단행 강제 집행. 정화회의의 청사에서 퇴거.

## 금강산은 성문관광과 함께

금강산 1만 2천봉 8만 9암자  
법기보살님이 1만 2천 권속들을 거느리고 중생교화를 하고 있는 성지

**금강산 3박 4일 ₩680,000부터 대폭 인하된 요금으로 모십니다.**



- ☞ 2인을 기준을 3,4,5인실에 추가되는 인원은 50% 할인
- ☞ 만 6세 ~ 12세 50% 할인
- ☞ 단체우대 10명 예약시 1인 무료

겨울 개골산(皆骨山)의 빼어난 설경(雪景)속에서 법기(法起) 보살님을 친견하도록 권합니다. 불국토, 민족의 성산 금강산을 참배하고자 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을 위하여 평불협 직영 성문관광은 금강산은 물론 해외불교성지까지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나무통일보살마하살

(주)성문관광회장 신법타합장  
평불협 회장

- 1) 신청방법  
성문관광에 비치된 금강산 관고신청서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의 신청서류와 함께 성문관광에 제출
- 2) 신청서류  
· 금강산관광신청서 및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각 1부  
· 여권칼라사진(3.5cm x 4.5cm)..... 3매

금강산관광지정대리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관광사업부 (주)성문관광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 B/D 101호 ☎02)722-2233 · 팩스 02)722-2350

## 모집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구미 금요종합복지관에 근무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 총무관리(부·과장)	0명	- 4년제 대졸 이상자로서 경력 3년이상 - 불자로서 구미지역 근무 가능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PC 가능자 우대
● 복지사업(부·과장)	0명	-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불자로서 구미지역 근무 가능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PC 가능자 우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면접일자 및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서류마감 : 1998년 12월 31일(목) 오후 5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 사회복지재단 총무과

☎ (02)723-5101~2, 734-0612~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